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조경수목산책 (Ⅱ X Ⅳ)

— 호도나무 —

1. 고향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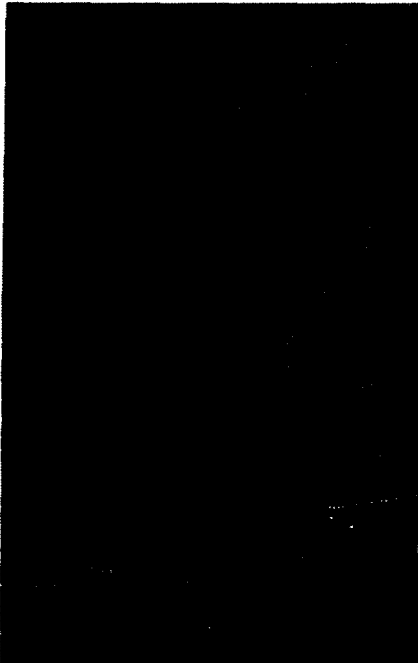
내가 살던 마을에서는 우리 집에
에만 추자나무 한 그루 있었는데
즐거워 할 때가 두 아름쯤 되는 커
다란 노목이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우리 집에
는 많은 양의 추자가 열리곤 했
다. 그래서 우리 집을 두고 모두
들 '추자나무 집'이라 불렀다. 아
직까지도 그 추자나무는 살아 있
긴 하지만 대부분의 즐거움이 죽고
일부만이 남아 보기가 초라하고
또 다른 집의 나무가 되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이 호두가 열리
는 나무를 '호두나무'라 하며 '추
자나무'란 말은 거의 알지 못한
다. 이 '추자나무'란 말에는 더러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는데, 경상
북도 산골 마을에서는 호두나무
란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호도나무의 우람한 수형. 영덕, 달산 덕산 2동 1973. 7. 25



▲가장 오래되고 큰 호도나무. 충남 천원군 광덕면 광덕사 구내. 유정진이 심었다고 하는 나무 1976. 11. 5

우리말 사전을 보면 추자(楸子)라 하는 것은 '가래' 또는 '가래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강원, 충북, 전라, 경상 지방에서는 방언으로서 '호두' 또는 '호두나무'를 말하는 것을 풀이되고 있다. 호두나무는 '호도나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당 추자(唐楸子)라고도 말한다. 그러면 추자나무를 대체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가래나무와 호두나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호도나무류의 분류

호도나무 종류에는 식물학적인

로 몇 속(屬)이 있다. 열매에 날개가 달려있는 굴피나무와 중국 굴피나무도 호도나무과(科)에 소속시키지만 이들은 열매가 매우 작고 식용적 가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곳 고찰에서 제외시킨다.

열매에 날개가 없는 것으로 호도나무속(Juglans)과 카리아속(Carya)이 있는데 호도 열매의 표면에는 주름살이 있으나 카리아의 열매 표면은 평활해서 쉽게 구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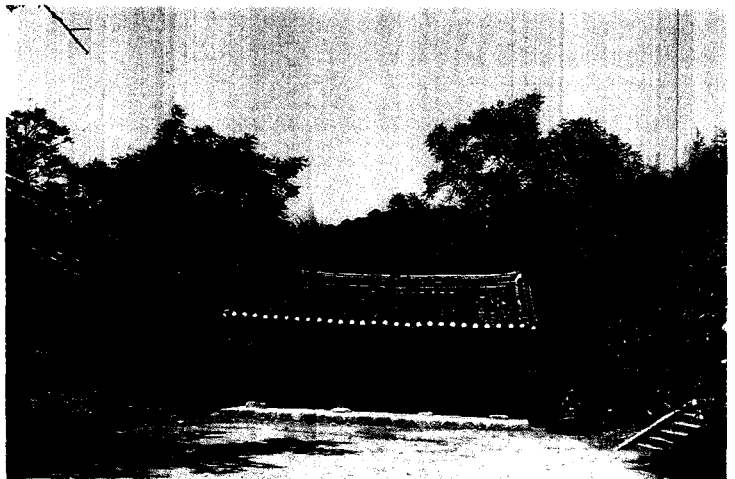
호도나무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지금은 자생수종 비슷하게 되었으나 카리아는 미국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나무이다. 호도나무속의 어린 가지 속의 수(髓)는 박층상(薄層狀)이나 카리아속의 것은 수가 충실(充實)해서 또한 구별의 거점으로 되고 있다.

카리아는 소엽(小葉)의 수가 5-7장 정도인 트루히코리(true hickory)와 4-6장으로 된 피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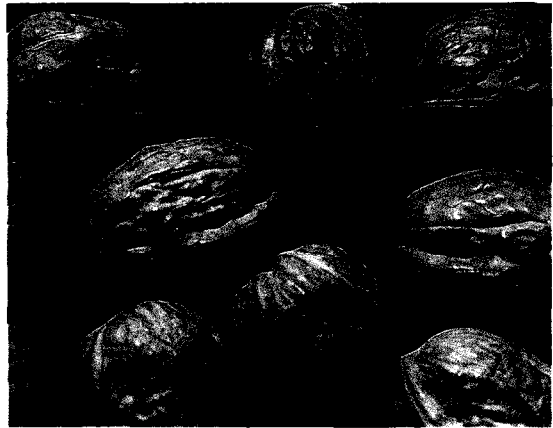
코리(pecan hickory)로 다시 나누어진다. 전자를 Eucarya라 하고 후자를 Apocarya라고 말한다.

이 중 식용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는 우리 나라에 토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또는 자생하고 있는) 호도나무와 가래나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 있어서는 호도나무(추자나무)와 가래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신라시대에는 호도나무를胡桃로 쓰지 않고 秋(가을 추, 추자나무 추, 또는 호도나무 추?)로 썼다는 것은 호도나무를 일반 백성들이 추자나무를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당시 호도나무를 중국에서 한자를胡桃로 했다는 것은 훨씬 앞선 일이고, 호도라는 기왕의 명칭을 신라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 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호도나무의 조경식재(相生). 전북 익산 향교 1991. 5. 10



▲호도모양

3. 호도나무의 전파

1902년에 간행된 Korea Review를 보면 호도나무(walnut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다.

『호도나무는 English walnut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 널리 식재되고 있는데 이에 3가지 이름이 주어지고 있다.

즉, 호도(胡桃), 강도(羌桃), 그리고 핵도(核桃)가 바로 그것인데 처음의 두 가지 이름은 야생(野生)의 복숭아라는 자의(字意)를 가지고 있고, 세번째의 것은 씨복숭아(seed peach)란 뜻이다. 이때 도(桃)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각과(殼果)가 복숭아 씨에 모양이나 크기가 무척 닮아 있는데 있다.

그러나 호(胡)와 강(羌)은 야만이라든가 야만민족을 뜻하고, 중국의 서부지방의 민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론 중국 민족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해

서 때로 강으로 표현한 적이 있으나 이때의 강은 중국인 이외의 타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전한(前漢) 시대에 장건(張騫)이란 사람이 서역(西域, 페르시아 지방)에 가서 호도를 처음으로 가져왔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호도나무는 중국과 한국 반도지방에 식재의 보편화를 보게 되었다. 장건이 서역으로 파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130년 전인 서기전 139년이고 돌아온 것이 서기전 126년이므로 중국에 호도나무가 식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115년 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도나무가 우리 나라로 건너온 것은 약 1600년 전 신라시대라고 추정되고 있다. 지금 호도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있는 곳인 함천지방, 그리고 낙동강 유역 등 경상도 지방이다. 서울에는 단지, 3그루의 호도나무가 서 있을 뿐이다.

창덕궁 안에 한 나무, 또 한 나

무는 현재의 독일 영사관 구내에 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격언 중에 “배고플 때 호도를 먹으면 더 고평진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호도는 배부를 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곰보 얼굴의 사람을 보고 호도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호도는 주로 생식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기름으로 짜서 약용으로 하기도 한다.』

위에 길게 기록문을 소개하였는데 문제는 “호도나무가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이란 대목이다.

문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장건이 호도를 중국으로 가져온 것이 약 2000년 전의 일이라면 그 뒤 약 400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믿어보아 좋다고 생각되는 시간적 경과이다. 또 신라의 ‘민정문서’(서기 755년의 것으로 보고 있다.)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일본에서 개량된 “시나노”호도



▲유럽에서 개량된 ‘콩코오드’호도

1240년 전의 일인데 그 문서에 사용된 ‘秋’는 ‘호도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호도나무 진화의 두 갈래 길

호도나무의 원산지는 페르시아(지금의 이란)라고 믿어지고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호도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세계 각처로 퍼져나간 것이라 이해된다.

자연 상태에서 호도나무가 스스로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는 그 속도가 무척 느렸을 것이고 따라서 오랜 세월이 걸려 먼 곳으로 옮겨 갔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페르시아 호두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는데, 그 중 한 방향은 유럽이다.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환경적 장벽이 거의 없어서 페르시아 호도나무의 성장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호도나무가 유럽에까지 진출하자 그곳 사람들이 이것을 개량하여 프랑켈트, 유레카, 마이에르 등의 조은 품종을 얻어냈다. 유럽에서 페르시아 호도나무는 사람의 힘을 입어 쉽게 미국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캘리포니아에 이르러 유명한 호두 생산지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또 다른 진로는 동쪽인데 북구인도, 아프가니스탄, 타이 등을 지나 북쪽으로 나아갔다. 이때 페르시아 호도나무는 히말라야 산맥이란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산맥의 북쪽은 남쪽에 비해 한랭했다.

이 산맥을 넘게 되면서 나무의 특징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었다. 이 호도나무에는 ‘동양계 호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란에서 퍼진 것 같은 나무들이 하나는 서쪽으로,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끝내는 서로 다른 것

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서양의 것과 동양의 것이 다시 만나게 된 곳이 ‘일본’이었다. 만나 보니 서로가 서먹서먹 했다. 한 조상에서 흘러나온 후손들이지만 자라는 환경과 역사가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서로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우량 품종이 만들어졌다. 나는 과거에 이 개량 품종을 우리 나라로 도입해서 증식을 시도한 바 있다. 서로 다른 것끼리 혼인을 하면 더 좋은 후손을 낳게 된다는 생물학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5. 더불어 살아가는 나무

사전에 보면 추(楸)자는 개오동나무 추, 호두나무 추, 그리고 가래나무 추라고도 읽어 대상 수종이 세 가지나 된다. ‘훈몽자회’라는 책을 보면 “楸는 ‘가래 추’로 읽고, 그 열매는 산핵도(山核桃)라 하며, 당추자(호두)는 핵도



▲미국원산 "흑호도 나무 전주. 산림환경 연구소 구내. 1996. 5. 25

(核桃)라 말한다" 했다.

호두나무와 가래나무는 그 구별이 쉽다. 가래나무의 잎은 톱니 처럼 생겼으나 호두나무는 그렇지 않다. 외과피를 제거한 열매를 보면 호두는 둥글고 털이 없으며, 가래는 끝이 날카롭다. 또 호두의 과피는 얇으나 가래는 두껍다. 그리고 호두는 안에 들어 있는 살의 양이 많아 먹음직하나 가래는 그렇지 못하다.

이때 '살'이라는 것은 식물학적으로는 떡잎에 해당하는 것인데 두 개의 자엽 사이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어린 뿌리와 어린 줄기로 될 기본조직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맛있

게 먹는 부분은 거의 이 떡잎에 해당한다.

열매 생산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은 호두나무이고, 가래나무는 주로 목재 생산을 위해서 보호관리되고 있다. 가래나무의 용도는 비교적 넓은 편으로 주로 총개머리, 가구재, 비행기 기구재로 이용되며 껍질은 섬유로도 이용된다.

언젠가 외국 문학서적에서 읽은 한 대목이 지금까지 나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소련 문학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강한 나라에는 곰이 많은 법이고, 곰의 서식을 위해서는 가래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래나무가 많은 나라는 부강한 나라이다."

생태학을 말할때 곰은 높은 차원의 소비자에 해당한다. 고차원적인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생물량으로 보

아 거대성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광역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가래나무의 소중함이 여기에서도 다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래나무는 우리나라의 산에 흔히 자라고 있기는 한데 그 목재가 좋아 벌채에 이용되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6. 楸와 秋

이곳에 필자의 견해를 하나 피력해 보겠는데 '秋'를 호두나무로 뜻한 것은 무척 흥미 있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楸'는 가래나무 추, 개오동나무 추, 호두나무 추 등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 중 '가래나무 추'라고 읽는 것이 높은 비중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훈몽자회'에도 楸를 가래 추, '實曰山核



▲흑호도 나무의 수피. 전주 산림환경연구소 구내. 1996. 5. 25

黑胡桃

▲흑호도

桃'라 해서 핵도(核桃)로 말하는 당추자(唐楸子)와 구별됨이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라 '민정문서'에 楸를 秋로 한 것은 전자는 목재의 이용가치가 더 많아서 木字를 秋字 옆에 붙인 것이고, 秋는 열매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木字를 떼어 버리고 秋로 해서 추자나무(호도나무)로 한 것으로 풀이해 본다. 신라 민정문서를 처음 공개한 노무라(野村, 1953)의 논문에는 秋子木을 「굴피나무 또는 호도나무」라 해서 단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굴피나무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뒤 1972년에 旗田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秋는 호도나무를 뜻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문제는 우선 이쯤 논의해 놓고 楸字에 대한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楸를 가래나무로 지적해서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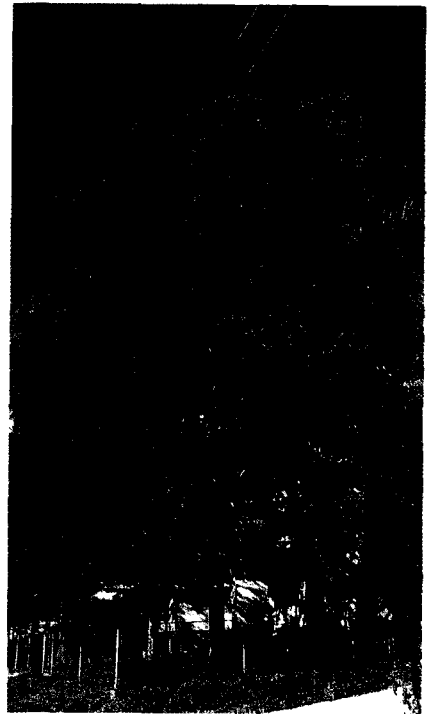
여진 보기를 찾아오면 "만기요람(滿機要覽) 공상(供上)에 관해서 왕대비전축일공상조(王大妃殿逐日上條)"에 호두 4석의 기록이 있고, "호조공물(戶曹貢物) 조"에 가래나무 목재(楸木)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大殿) 축일(逐日, 날마다)의 공상에 호도 4석이 있고, 월령(月令, 다달이 정해서 바치는 것)에는 가래(楸子) 8상자가 있는데, 이때에 가래(楸子)를 호도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가래가 당시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였을까.

'아언각비(雅言覺非)'에 보면 설명이 복잡하다. 楸는 가래나무를 말하나 단묘(壇廟)의 제물단자(祭物單子)에 추자(楸子)라 한 것은 모두 산핵도(山核桃) 즉 '호도'를 뜻한다고 했다. "楸는 櫟 또는 榿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가래나

무 '의(椅)', 가래나무 '재(梓)', 가래나무 '추(楸)', 가래나무 '가(檟)'는 한 가지 나무이면서 네 가지 이름으로 모여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설명은 큰 혼돈을 야기시키고 판별이 아리송해질 뿐이다.

'왜어유해(倭語類解)'에는 호도와 가래(楸)를 구별하고 있다. 훈몽자회에는 더욱 어렵게 설명이 되면서 梓字와 楸字는 모든 가래나무를 뜻하며, 재목이 미끄럽고 반들반들한 것은 '梓'이고, 결이 좋지 못하고 흰 것(茸白, 용백)은 '楸'라 하나 梓는 구별이 잘 안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명문한한대사전(明文漢韓大字典)'을 보면 楸는 가래나무 추



▲피켄나무. 미국 아틀랜타. 1978.7



▲피켄나무. 잎과 열매. 미국 몽고메리 시내. 1985. 8



▲피켄 열매.

또는 노나무 추(개오동나무를 뜻함)로 읽는다 했다. 이처럼 한문자는 한 글자가 한 가지 뜻(대상물)으로 쓰여지지 못한 관계상 우리에게 혼돈을 던져주고 있는 느낌이 있다.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한문자의 뜻은 또 별다른 데가 있는 것 같고, 楸는 개오동나무라 했다. 즉 설문(說文)에 楸梓也라고 하고 이시진의 본초(本草)의 楸는 개오동나무를 뜻하고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즉 楸는 열매가 가늘고 긴데 가늘이 되면 선(線)이 늘어진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추선(楸線)으로 말하는 것이며, 그 목재는 생재일 때는 약하고, 건조하게 되면 단단해지므로 좋은 목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둑판을 만드는 재료로 될 수 있고, “목재가 붉은 색을 띤다”라고 했다. 개오동나무를 열매의 모양에 따라 노끈 나무 또는 노나무라 하는 것은

“추선(楸線)을 다는 나무”라는 뜻에 통한다.

재상(梓桑)이라 하면 곧 고향을 뜻하는데 부모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개오동나무와 뽕나무를 심었다는데 뜻의 유래가 있다. 『吾不愛誇衣 榮歸錦梓里』 즉 “좋은 옷 입을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개오동나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시경(詩經)에도 梓漆이란 말이 나오는데, 역시 梓는 개오동나무로 악기를 만드는 데 좋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연각비에서 말한 楸는 곧 梓라 한것은 개오동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

이상 한자의 뜻은 너무나도 구구하고, 복잡하다는 것만 이곳에 지적하고 손을 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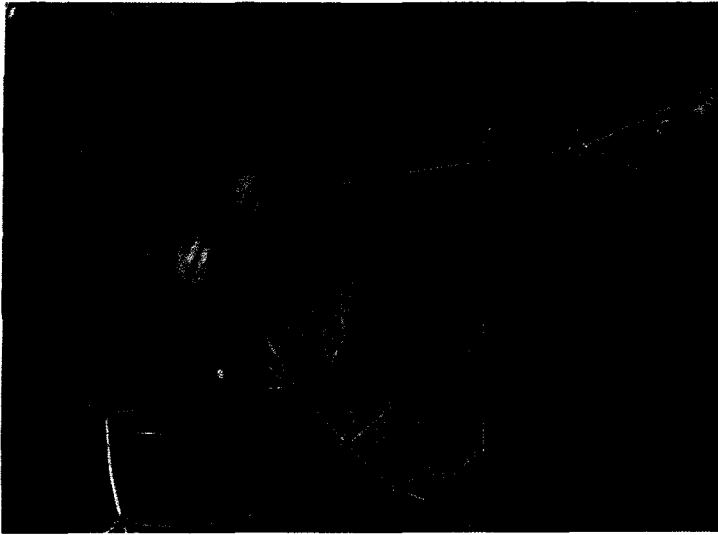
7. 신라 민정문서와 추자나무

중국의 고서인 박물지에는 ‘장

건이 페르시아로 갔을 때 호두를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장건은 한나라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짐작되고 있다. 그는 한나라 무제가 파견한 사신이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호두는 빠르게 들여와 졌다. 그러나 그때 들어온 호두나무는 중국의 환경 아래에서 많이 도태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러나 저러나 장건은 호두나무의 전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호두나무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사연은 어떠한가.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있다.

첫째는 고려조 중엽에 충남 광덕면 대덕리 출신인 유청신이란 사람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호두를 가지고 들어와서 천안 부근에 심은 것이 시초였는데, 이로 인해 ‘충남 천안’의 ‘호두’가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광덕사 구내에는 우리



▲학코리 나무의 열매. (*Carya tomentosa*) (mockernut hickory) 미국. 아틀랜타 식물원. 1987. 7. 25

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것으로 믿어지는 호두나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1230여년 전, 신라 경덕왕 때 기록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문서에 이미 호두나무 심기가 실시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에 호두나무가 들어온 것이 약 1300년 전 쯤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이에 얽힌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나라 지방에 있는 동대사 정창원은 절간에 부속된 창고 비슷한 것으로 이 안에는 국내외의 미술 공예품, 고서적,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용품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보물 창고는 일본 왕실의 특별한 보호 아래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신라 시대의 뛰어난 모필의 자취가 엿보이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그 문서는 1953년

일본인 노무라가 세상에 소개함으로써 일약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어서 여러 편의 논문들이 더 발간되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추자나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문서에는 이미 추자나무의 식목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식으로 장려되었다고 나와 있다. 그 기록이 이루어진 장소는 대체로 충북 청주 부근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때 식재된 나무들로는 뽕나무, 잣나무, 그리고 추자나무 등 세 가지로 심은 나무의 숫자와 3년 뒤에 죽은 나무의 수 그리고 새로 보충해서 심은 추자나무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추자나무의 용도가 매우 중요시 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나타난 '추(楸)'를 호두로 볼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호두로 이해하는 것이 대체로 맞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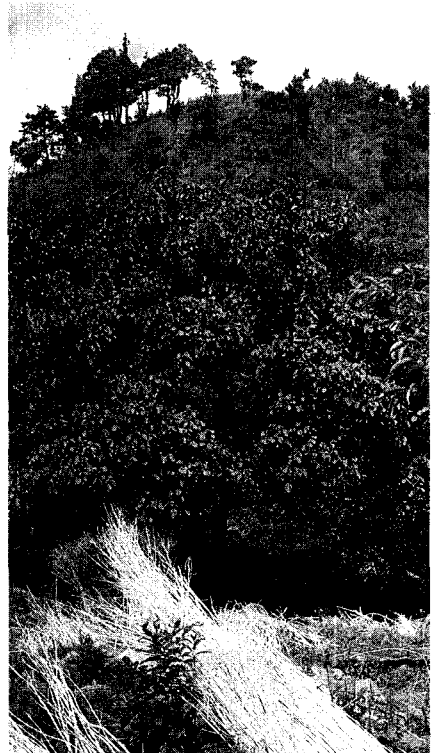
8. 종교서적에 나타난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종교와 관련해서 간혹 나오고 있다. 불전(佛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한 비구(比丘)가 축축한 물기 있는 염색용 나무로 옷을 삶았으나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햇빛에 쪼여 건조시킨 뒤에 자염(煮染) 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색깔이 좋지 않았다.

「햇빛에 쪼이지 말고 하라.」 응



▲건강한 호두나무. 경북 금릉. 증산 황점리

달에 두었더니 곰팡이가 생겼다. 『지나친 햇빛도 피하고, 지나친 응달도 피해서 말려라.』 염색용 나무와 옷을 함께 끓이니 옷이 찢어지는 일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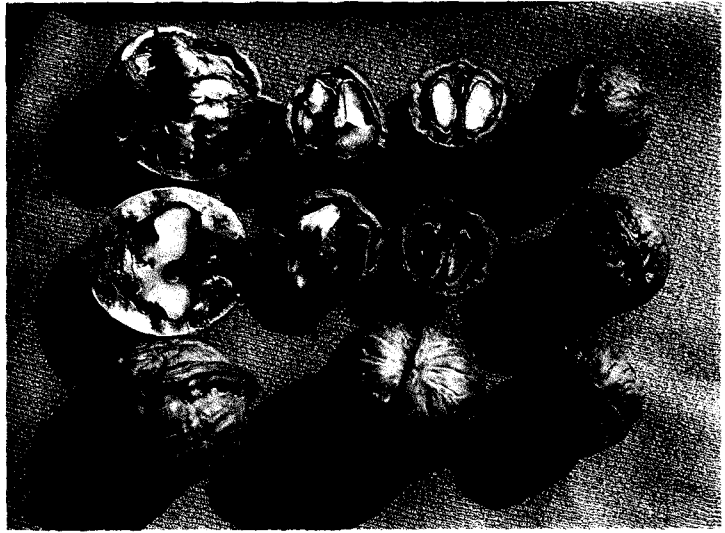
『나무 끓인 물에 옷을 넣어 끓여라.』 한 번 쓴 염색용 물을 버리는 비구가 있었다. 『염색용 물은 세 번 쓰고 버리도록 하다.』 새로운 염색용 물에 흰 옷을 넣고 새로운 옷을 흰 염색물에 넣는 비구가 있었다.

『새 옷은 새 물에 흰 옷은 흰 물로 염색하라.』 이러한 대화가 있는데 석가여래도 비구를 훈련하는데 무척 바쁜 시간을 가진 모양이라고 풍자한 대목이 있다.

『호도나무로 염색함을 허용하나 단, 너무 검게 옷을 염색하지는 말라.』라는 줄거리도 있다. 그래서 인도의 승려는 호도나무 등을 옷의 염색재료는 이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약성서 아가 6장 11절에 보면 『나는 산골짜기의 초목의 꽃을 보기 위해서 호도나무 숲 속으로 내려 갔었다…….』하는 구절이 있다. 한때 호도나무는 아가 속에 나타나는 가상적인 부부의 동산에만 자라는 것으로 생각된 바 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보고 부른 노랫가락 중 『나에게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목(果木, 호도나무도 들어있을 것이다.), 나르드(Nard, 향유를 얻는 다년생 풀, 甘松), 사프란



▲호도와 애기호도 열매의 비교. 애기호도(일본산)는 익산시내 소진탁 교수택에서. 1987. 10

(Saffran), 창포, 계수나무(향료를 얻는다. cinnamomum), 유향목(乳香木), 몰약(沒藥, 향료를 얻는 아프리카 동부 및 아라비아 산의 식물), 침향(沈香, aloes)같은 향료가 나는 것들이다.

『그대는 동산의 썸이요, 생수가 솟는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흘러 내리는 시냇물이라』라는 대목이 있다. 호도나무와 같은 맛있는 열매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다.

9. 부적 비슷한 호두알

호두나무는 알맞게 심을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들어가고 호두나무끼리 땅속 뿌리가 서로 접촉하게 되면 결실량이 무척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이남 지방에서 잘 자란다.

추자, 즉 호두는 옛부터 귀중한

과일로 여겨졌고 관혼상제에는 항상 큰 몫을 해 내었다. 호두 열매는 영양가가 높아 몇 알로도 점심을 대신할 수 있으며 또한 불포화성 지방질로 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들에게 특히 좋다고 한다.

추자를 일본 사람들은 ‘구루미’라 하는데, 그 뜻은 ‘살아서 돌아오는 몸’이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나 남편의 주머니에 추자를 넣어주곤 했다 한다. ‘방약합편’에 보면 호두는 경맥을 통하게 하고, 콩팥을 강하게하고, 머리털을 검게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이 먹은 것은 못된다고 했다.